

OpenDoors

11

2023

VOL.259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국제기도의 날 IDOP

칼럼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들의

이야기와 우리의 기도

- 아시아 Asia
- 아프리카 Africa
- 중동·북아프리카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 라틴 아메리카 Latin America

Heart To Heart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부록 기도월력

Ch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Doors

한국오픈도어를 섬기는 사람들

2023년 11월호 | 통권 259호 |
등록번호-중랑, 라00042

공동대표 : 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별사역)

이사장 : 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 김영복 목사

이사회 : 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바울 이사

사무총장 : 김경복 선교사

개발/행정/재정/홍보/정보 : 문민환, 황자경, 박인영
민태홍, 김하영 간사

북한선교 : 이제나, 이다니엘, 윤수지, 안요한, 이정현,
김안나, 한아론, 장요셉 간사

발행처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 596-3171 팩스: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 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편집 및 디자인 : 김셋별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OPENDOORS 7가지 핵심가치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SUPPORT

<후원신청>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과 일시
후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
은 **홈페이지의 '후원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또는
소식지 가장 뒷면에 있는 CMS 정기후원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
세요.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를 신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은 자동발급 됩니다.

<계좌이체>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계좌로 후원
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가능하
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일시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CONTENTS

03 국제기도의 날 IDOP

04 칼럼

06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들의 이야기와 우리의 기도

- 아시아 Asia
- 중동·북아프리카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 아프리카 Africa
- 라틴 아메리카 Latin America

23 Heart To Heart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부록 기도월력

국제기도의 날 IDOP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1)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픈도어(Open Doors)'는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지원하고 그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브라더 앤드류(Brother Andrew)는 동구권으로의 첫 방문으로 시작하여 교회가 공격받고 있는 중국, 구 소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동 등 전세계 많은 곳으로 복음 중심적 사역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픈도어는 60개가 넘는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브라더 앤드류에게 주신 "남겨진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는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르신 첫 날에 그 부르심의 목적과 계획을 드러내 주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언젠가 오픈도어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셨다면, 저는 절대 그 첫 걸음을 떼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 걸음을 걷고 나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절대 보여주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걸음을 내디뎌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 동안 응답되지 않은 기도제목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의 힘이라는 잠재력을 알았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무릎을 꿇고 세상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분에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브라더 앤드류, 오픈도어 설립자 (1928 -2022)

1996년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은 매년 11월 첫째 주를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기도의 날(IDOP: International Day of Prayer for the persecuted church)로 정했습니다. 전세계 교회가 마음을 모아 박

해 받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올해로 28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오픈도어는 이 기도운동을 함께 하는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오픈도어 설립자 브라더 앤드류는 평생 박해 받는 이들을 위한 섬김을 인정받아 1997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세계복음주의연맹 총회에서 종교자유상을 수상한 첫 수상자입니다. 브라더 앤드류는 수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습니다. "저희는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박해 받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동원하는 것을 통해 그들의 고난에 참여하는 가운데 중요한 변화를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님들, 이 기도의 날에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3:2)



**IDOP 국제기도의 날 참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동참해주세요.**

방법 1) 2023년 11월 5일, 주일 예배 시간

2023년 11월 5일, 주일에 박해 받는 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는 이 날을 특별히 'IDOP 국제기도의 날'로 정하고 성도들과 함께 박해 받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DOP 국제기도의 날 주일 당일 지정헌금을 통해 박해 받는 교회들을 섬기는 사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자유로운 날, 교회 예배 시간

교회는 자유로운 날을 선택해서 박해 받는 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통해 박해 받는 교회들을 섬기는 사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방법 3) 11월 한 달 동안

개인 또는 그룹들은 11월 한 달 동안 자유롭게 박해 받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통해 박해 받는 교회들을 섬기는 사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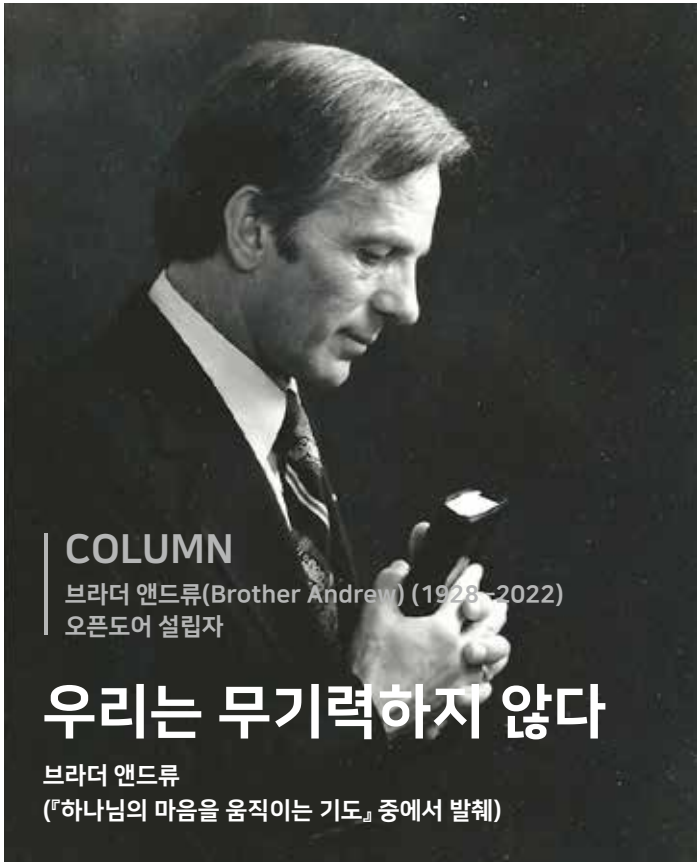
방법 4) 2023년 11월 10일, 특별철야기도회

성도님들은 이 날 밤에 한국오픈도어와 에스더 기도운동이 함께 주관하는 전세계 고난받는 교회를 위한 특별철야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장 또는 온라인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국제기도의 날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아래 경로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

- 요청하기 - 오픈도어 Sunday - 국제기도의 날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OLUMN
브라더 앤드류(Brother Andrew) (1928 -2022)
오픈도어 설립자

우리는 무기력하지 않다

브라더 앤드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중에서 발췌)

얼마전 나는 중동 테러리스트의 만행으로 목숨을 잃을 지경에 이른 인질들에 대해 그리스도인 여성 두 명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인질들과 그 가족들이 안됐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셨을 거예요.”라고 그 여성이 말했다. 다른 여성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요, 그렇지만 참으로 우리를 상심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에게 인질로 잡힌 것 같아요. 테러리스트나 독재자, 마약 밀매자, 범죄자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자 먼저 말한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친구의 팔을 가볍게 토닥거리면서 위로하는 어조로 말했다. “그렇게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로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나는 법은 없지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았다. “뭐라고요?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무기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어째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대단히 헌신된 그 여성들은 그릇된 교리에 빠져 있었고,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교리에 감염되어 있다. 나는 이 교리를 ‘운명론적 기독교’라고 부른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두 여성은 그리스도인을 무력하게 만드는 영적인 오류에 빠졌던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은 회교 신앙과 대단히 잘 들어맞으며, 또한 힌두교나 불교와 같은 운명론적인 신앙과도 다를 것이 없다. 기독교에는 운명론이라는 것이 설 자리가 없다. 오히려 정반대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즉 인간의 역사를 쓰는 일에 하나님의 동반자요, 동역자가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태초 이래로 하나님을 대적해 온 악의 세력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우리가 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믿음과 기도를 통해 세상을 악의 권세에서 구해낼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심에 응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인간에게 영향을 받으시며, 인간 역사를 좀 더 낫게 변화시킬 ‘천국열쇠’(마16:19)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요14:12-14)

이보다 더 명백한 말씀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주저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즉 중보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믿지 않는다. 왜 믿지 않는 것일까? 회교도나 불교도 또는 힌두교도는 잘못된 겸손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획을 바꿀 만큼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도 하지 못한다. 우리도 그들처

럼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겠는가?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1983년 오픈도어선교회는 소련을 위해 7년간 기도하기로 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초래하는 악의 음모가 모스크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고 확신했다. 여러 공산주의 국가에서 수백만 명이 계획적으로 대량 학살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투옥되었다. 우리는 사단의 강한 요새를 공격하여 그를 대적하기로 결정했다. 세계 도처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우리와 뜻을 같이 했다. 우리는 동유럽과 소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벽이 무너지고, 투옥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되기를 구하며 특별히 기도했다.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결과를 볼 수 있었다. 그동안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 항상 듣던 공산주의 미사여구 대신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라는 말을 들었다. 우리가 기도했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으며, 그 바람을 막을 길은 없었다. 마침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 지 6년이 되어갈 때, 동서의 장벽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공산주의 압제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감옥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동유럽은 그들을 속박하던 권력에 대항하여 들고 일어났다.

30년 동안 철의 장막 뒤로 성경을 밀반입시키던 나는 1989년, 소련인들에게 우리 단체가 소련 교회에 러시아어 성경 백만 권을 배포하겠으니 허락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허락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지 7년이 채 안 되었을 때,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소련에 있는 감옥이나 집단 수용소에 신앙 때문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가는 대로 그저 받아들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우리를 향해 열려 있으며,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땅을 뒤흔드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들의 이야기와 우리의 기도

2023년 월드와치리스트 데이터에 의하면, 3억 6천만명(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 1명에 해당)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높은 강도의 박해와 차별을 당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월드와치리스트에 올라온 모든 국가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며 그 중 높은 순위에 위치한 국가의 국민들에게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매일의 도전입니다. 믿는다는 것 자체가 압박, 차별, 잔혹함, 그리고 충격적인 폭력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연 재해,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강한 사회문화적 규범과 같은 이유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Asia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5)

북한 (North Korea)

기독교 박해지수
1 위

오픈도어의 목표는 항상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견고하게'(계 3:2) 하는 것이다. 이 구절은 특히 북한 교회의 상황과 잘 맞아 떨어진다. 우리의 지지가 없다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굶어 죽어갈 것이다. 북한에서 진행되는 사역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오픈도어의 중국 네트워크를 통해 박해받는 북한 성도들에게 긴급구호품(식량, 의약품, 의류 등)을 공급한다. 라디오 방송을 통한 훈련을 제공한다.
- 중국에 있는 북한 성도들(북한으로 종종 여행함)에 게 숙소, 훈련, 그리고 훈련 자료를 제공한다.

국가 상황

주요 종교	신자	비율 (%)
기독교	400,000 명	1.5
불가지론	14,869,170 명	57.2
무신론	3,933,747 명	15.1
기타	3,289,819 명	12.7

* 기타는 중국 민속, 신흥 종교, 시크교, 강신술, 도교, 유교, 자이나교, 힌두, 조로아스터교를 포함한다.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박해지수 총합은 100점이다 (16.7 X 6개 영역 = 100).

개인 생활

경찰과 정보원들은 예고 없이 집을 수색한다. 기독교 자료가 발견되면 국가에 반하는 범죄로 간주해 온 가

족이 추방당하거나 투옥되거나 처형당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스마트폰이나 라디오를 사용하여 승인되지 않은 매체에 접속하는 사람은 처벌된다. 기독교인들이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은 오로지 밤에 이불 속에 숨어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청취하는 것이다. 주민들은 가족을 포함하여 정권의 적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신고하도록 훈련을 받는다. 교사는 학생들이 배운 내용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부모를 비난하도록 부추긴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기독교인 부모는 자녀가 십대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가족 생활

공개적으로 세례를 베풀면 투옥되거나 처형될 수 있다. 위에 개인 생활 부분에서 보았듯이 자녀와 신앙을 나누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기독교인들은 성경 이야기를 동화로 가장해 아이들과 나누려 한다. 일부 탈북자 난민들에 의하면 기독교인임이 발각된 사람의 비기독교인 배우자의 부모가 고위직일 경우 이들을 강제로 이혼을 시키고 관계에 대한 모든 기록을 없앨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연좌제 원칙에 따라서 온 가족이 심문을 받고 투옥되기 때문이다. 김일성주의는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 심지어는 핵물리학과 같은 과목의 박사 학위 과정에서 수업 내용의 30%가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기독교는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가져온 반역적인 이데올로기로 묘사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반역자 그리고 간첩으로 보여지고 있다.

공동체 생활

북한은 인민반이라는 공산주의 이웃 감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주택 단위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국에 보고된다. 경찰이나 첩보 기관에 의한 무작위 심문은 모든 주민에게 항상 있는 일상이다. 그 목적 중 하나는 기독교인들을 찾아내 처형하거나 수용소 또는 외딴 산지로 추방하는 것이다. 한 북한 전문가에 따르면 심문(그리고 이와 관련된 고문)은 탈북자들이 강제 송환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라고 한다. 기독교인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면밀히 감시되고 좋은 학교, 군대, 그리고 노동당 참여를 할 수 없다. 모든 북한

주민들은 출퇴근길이나 등하교길에 동상에 고개를 숙여야 하고, 자아비판 시간이나 국가행사 같은 관례에 참여해야 한다.

국가 생활

새로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헌법 68조와 함께 시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명시하지만 동시에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와 사회 질서를 해치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이나 국가의 기능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노동당의 유일사상 10대 원칙 법령이다. 이것들은 북한 정부와 사회의 통치 원칙이다. 창시자 김일성의 가르침에 입각하면 이 규칙들은 최고지도자(수령)와 조선로동당(조선노동당)에 대한 정치적 통일체의 확고한 충성심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국영 언론은 반기독교 콘텐츠를 방송하는데 여기서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사악한 배반자로 묘사되고 선교 활동은 ‘테러 행위’로 불리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임의적으로 체포되고 재판도 없이 처벌을 받는다. 법정 소송에 선 외국인 기독교인들도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장기간 임의 구금되고 있다.

교회 생활

관광객들에게 북한의 종교 자유를 “보여주기” 위해 세운 평양의 공식 교회에서 열리는 예배를 제외하고 북한에서 모든 교회 활동은 불법이다. 지하 교회 단체가 발각되어 기독교인들이 강제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처형당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보안상의 이유로 세부 정보는 밝힐 수 없다. 정권은 특히 지도자를 찾아 처벌하고 관련된 연결망에 대해 심문하는데 관심이 있다. 북한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은 개인용 성경책 한 권만 소지할 수 있고 북한에 두고 떠나지 못하도록 짐 검사를 한다. 기독교 자료의 반입 및 제작은 금지된다. 통일연구원의 2021년도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처형이 더 빈번해지고 있다. 성경을 배포하는 행위는 소지하는 행위 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 북한 주민들은 정부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날 수 없기에 회의를 참석하거나 해외에서 다른 기독교인을 만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_

은신처에서 전해온 편지: '순교를 해야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계속되는 위협과 코로나19 제한에도 불구하고 오픈도어는 계속해서 은신처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내 북한 기독교 난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식량, 의료지원, 목회 돌봄, 그리고 성경공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고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과 짧은 시리즈를 통해 3개의 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편인 '순교를 해야 된다면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입니다. 이 편지는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아온 한 북한 여성이 쓴 편지입니다. 그녀는 현재 은신처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저희가 여러분의 은혜로운 지원을 통해 돕고 있는 이들 중 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써 내려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북한에서 저는 나약했지만, 지금은 강하고 건강해요. 저는 부모님, 자매 두 명, 그리고 형제 한 명과 함께 자랐어요. 저희는 넉넉한 생활을 하곤 했는데, '부끄러운 일들'이 몇 가지 있었고 저희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생존하는 것이 어려웠고 저는 중국에서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돈을 벌어서 부모님을 지원하고 싶었어요.

하루는 식당을 방문했어요. 이 곳에서 처음으로 기독교인들을 접했죠. 몇몇 손님들이 눈을 감고 분명히 그

곳에 있지 않는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러더니 또 다른 집단이 똑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다른 손님들은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듣고 저에게 사진 하나를 건넸어요. 몇몇 사람들, 태양, 그리고 병원의 십자가와 같은 것이 보였어요. 이 사진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 이 사진을 주면서 그들은 또 다시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말을 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거지?"

몇 개월 후에 저는 공장에 일자리를 얻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 조선족 여성이 일요일에 어떤 행사에 같이 가자고 초대해줬어요. 그녀는 저를 교회로 데려갔죠. 그녀는 먼저 상자에 돈을 조금 넣고 눈을 감고서는 말을 했어요.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죠. 저는 그저 '이게 여기서 해야 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잠깐 동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떴을 때 한 남자 분이 기타 연주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이 제가 처음 교회를 방문했을 때 선명하게 기억하는 다른 한 가지 일이에요.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복음에 열려 있지 않았었죠. 저는 돈 버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술도 많이 먹고, 다른 이들과 말다툼을 벌이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 때를 돌이켜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저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 좋아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는 갑자기 사라졌어요. 저희 부모님에게서 돈을 빌리고는, 갑자기 사라진 것이죠. 그가 떠나 있는 동안 저는 아들을 출산했어요. 저는 할 수 없이 부모님과 살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많이 편찮으셨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이 속상했어요.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생각했어요. 그러지 못한 이유는 오로지 부모님과 아들 때문이었죠.

후에, 저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아이 없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에 있는 친구가 저를 한 선교사님에게 소개해줬어요. 그는 저를 성경 공부에 초대해 주셨어요. 저는 너무 두려워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종교가 허용되지 않고, 아는 것만으로

도 형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중국에 간첩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분이 그들 중 한 명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위험을 감수하고 성경 공부에 나갔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제가 살면서 만난 다른 남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죠. 제가 하루는 손가락으로 무릎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십자가가 있는 집을 절대로 방문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죠. 지금은 그렇게 한 것이 부끄러워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어요. 처음에는 이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여시고 믿게 하셨죠. 특별히 선생님이 저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 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주었어요! 저는 제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잘못된 행동을 많이 했어요. 다른 이들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간음했어요. 저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을 발견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찬양을 많이 배웠는데 이것은 제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 힘이 되었어요. 그 중 한 곡은 '사명'이라는 곡이에요. 이 찬양은 저의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을 저의 인생의 목표로 삼게 되었죠.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지나셨고, 저는 그분을 따라 북한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주는 구원에 대해서 누가 외칠 수 있겠니?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누가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그러므로 세상이 저를 미워할지라도 저는 북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를 사랑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주시기 위해 어린 양이 되어 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받아들이 수 있도록 저

의 마음을 만져 주시는 성령님, 사랑합니다."

저는 이곳 은신처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 잠이 많았는데, 이제는 새벽 4시반에 일어나서 한 시간 반 동안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는 6시부터 7시까지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통해 벌써 성경을 17번 통독할 수 있었어요. 최근에 예레미야를 다시 읽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돌아오렴, 돌아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강박한 북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종종 바울과 저를 비교하곤 해요. 그는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죠. 저는 그와 같이 살고 싶어요. 제가 이곳 은신처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저의 인생과 저의 몸은 하나님 것이에요. 늘 저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거예요. 저는 사나 죽으나,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했어요. 북한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제 마음을 많이 아프게 만들어요. 저는 죽어가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제사의 전체 제물이 되고 싶어요. 나의 민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면, 되겠어요. 북한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재건될 때까지 제 인생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저의 믿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기도해요.

저의 편지를 읽어 주셔서 감사드려요.'





중앙아시아_사밀의 라마단

사밀은 청소년기 현지교회의 청소년 리더가 세운 축구 팀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무슬림이라는 인식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이후 젊은 세대들을 위해 열린 교회 행사에 참여한 뒤로 더 자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그는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정했고 이 결정은 그의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 선교도 가고, 듣고자 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금요일에 모스크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날은 기도 날이었어요. 저는 신약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깊은 갈망이 있었어요.”

어느 날 사밀은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몰라(이슬람교 율법학자)의 공격적인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밀의 신앙과 교회에 대한 질문들이었죠. 그는 사밀이 모스크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몹시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사밀은 그 당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 몰라의 질문들에 대응할 수 없어 몹시 혼란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험 이후에 사밀은 기독교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자 단단히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밀은 오픈도어에서 진행하는 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해 신앙을 위한 지식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밀은 그 다음 라마단 기간 동안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밀의 어머니는 몰라를 집으로 초대해 할머니를 위한 추모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 후에 사밀은 다시 한번 몰라와 얘기를 나눴는데, 이번에는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몰라가 사밀의 질문에 대해 아

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고, 그는 몹시 화가 나 사밀의 부모에게 그가 세뇌를 당해 정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후 사밀의 부모는 사밀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심한 박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라마단 이전에는 이웃과 공동체 사람들의 박해를 당했다면, 라마단 이후에는 가족들의 박해를 당했다고 사밀은 전했습니다.

사밀의 아버지는 아들의 신앙에 대해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는 압박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자, 그는 분노했고 사밀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사밀의 누나와 몰라인 매형도 사밀을 탄압했습니다. 매형은 사밀이 세뇌되어 더 이상 정상인이 될 수 없으며 희망이 없다고 말했고, 그의 누나도 결국 사밀을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사밀은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지지해주셨어요. 비록 제가 개종하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으셨지만 저를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전 지금 어머니가 주님과 함께 계실 것을 믿어요.” 사밀은 한 기독교인 여성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니카(이슬람 결혼 의례)도, 몰라도 없는 결혼예식을 사밀의 아버지는 수치스러워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를 집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아버지는 몹시 화가 나서서 저를 때리셨어요. 아프진 않았지만, 결국 집 밖으로 쫓겨났어요. 한 밤 중에 거리를 서성이면서 방황하다가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둘째 누나가 몰래 집 문을 열어주어서 제 방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둘째 누나 아미라는 저희 가족 중에 유일하게 저를 이해해줘요.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저의 신앙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족의 박해를 견디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

지만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저의 아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예요. 저의 친척들은 아무도 '(이슬람)신앙을 저버린 배신자'와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멋지고 착한 믿음의 아내를 주셨어요. 저희에게는 딸 하나가 있고 둘째도 가질 계획이예요. 저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후, 여성에 대한 태도도 바뀌게 되었어요. 저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을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주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다 평등하고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박해 상황 중에 하나님은 저의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누나와 같은 여성들을 통해서 저를 도우셨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떠나지 않으세요.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큰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셔요. 하나님은 저를 절대로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마음에 항상 평안을 주셨고요. 저는 대단한 기적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영혼의 평안을 누렸어요. 하

나님은 박해에 대한 저의 태도도 바꾸어 주셨어요. 이전에는 저의 신앙 때문에 저를 미워하고 상처 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도해주세요

1. 저의 아버지, 누나들, 매형 그리고 조카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 저의 모든 무슬림 친척들과 이웃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3.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길 잃은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확실한 마음이 있어요.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과 구원에 대해서 나눠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4. 저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중동·북아프리카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함이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9:18)

이란 (Iran)

8위

오픈도어는 기독교 대중매체 계획과 옹호로 파트너들을 통해 이란의 교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상황

주요 종교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1,245,000	1.4
이슬람교	84,136,707	97.8
바하이교	251,157	0.3
불가치론	241,230	0.3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박해지수 총합은 100점이다 (16.7 × 6개 영역 = 100).

개인 생활

인터넷이 감시되고 체포에 앞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특히 개종한 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예. 블로그 또는 소셜미디어) 표현하는 것은 위험하다. 기독교적 메시지(특히 페르시아어

로)를 나누는 것은 전도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온라인 상의 기독교 자료들에 접속하고 외국인 기독교인들과 접촉하는 것은 위험한 활동이며 페르시아어로 된 기독교 자료들을 특히 대량으로 보유하는 것은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이란인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으로 시사된다.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이들을 포함하는 모임들은 감시되고 자주 습격을 당한다.

가족생활

기독교인들은 이슬람교의 아이들을 입양할 수 없지만 아르메니아인들과 아시리아인들은 입양할 수 있는 그들만의 고아원이 있다. 개종한 이들의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이슬람교로 등록이 되고 1979년 혁명 이후에 더욱 이슬람화 된 이슬람교 기반의 교육에 참가해야 한다. 심지어 아르메니아와 아시리아 기독교인들의 자녀들도 초등학교 때 이슬람교 수업을 듣도록 강요 당한다. 이에 반하는 경우는 부모에 대해서는 법정 소송 사건들, 그리고 이에 관련된 아이들에 대해서는 위협으로 이어졌다. 대학의 경우 이슬람교 역사, 코란의 가르침, 그리고 아랍어와 같은 수업들은 의무적이다. 대학 입시 원서들은 지원자들에게 자신의 종교를 명시하도록 한다. 만약 이슬람교 태생의 개인들이 기독교를 작성하면 그/그녀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성도들이 흔히 장기간 동안 수감되는데 이는 온 가족에게 정신적 외상의 영향을 미친다. 민법 881조에 따르면 비 이슬람교인은 이

슬람교인에게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심지어 비 이슬람교인의 상속인 중 한 명이 이슬람교인인 경우에 그 사람이 모든 유산을 상속 받는다.

공동체 생활

기독교인들은 감시를 당하고, 특히 가정교회를 운영하거나 복음전도에 관여하는 것으로 의심 받는 경우에 더 그렇다. 이들 기독교인들은 위협하기 위해 만들어진 심문에 자주 소환 당한다. 이란 정보원들은 해외에 있는 이란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이란 정보국에 보고한다. 이란에 있는 모든 여성들은 머리를 가리고 히잡을 착용해야 한다. 국가는 경제의 80% 이상을 통제하고 이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후견주의와 정실주의에 의존한다. 아르메니아인들과 아시리아인들과 같은 역사적 기독교인들은 사업을 할 때 차별에 직면하고 이외 다른 기독교인들은 이란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가 드물다.

국가 생활

정부의 고위직들은 이슬람교의 시아파들을 위해 남겨졌다. 아르메니아/아시리아 기독교인들을 위해 남겨진 의석 세 자리를 제외하고 기독교인들은 관직이 금지된다.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국내 언론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국가 공무원들과 이맘들은 기독교인들을 (특히 시온이즘과 가정교회들에 관련해서) 비난했다. 성희롱은 이란 헌법에 위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흔하게 자행되고 있다. 가족들은 처벌 받지 않고 개종한 이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교회 생활

대부분의 교회 예배는 경찰들에 의해 감시되고 참석자들을 두려움에 이르게 한다. 아르메니아와 아시리아 기독교인들은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맞이하지 않는 경우에 자신들의 언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아르메니아와 아시리아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보조를 받는 학교들을 일부 운영하기도 하지만 교장들은 일반적으로 이슬람교인들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정부는 교회를 폐쇄하고 지도자들을 체포하여 이란에서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기독교인들을 내보내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공식적으로 국가에는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교회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예멘_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불법인 곳에서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불법인 예멘의 기독교인들로부터 소식을 듣는 일은 드뭅니다. 예멘에서 기독교인들은 이슬람교를 떠나 예수님을 따르도록 결정했다는 이유로 당국에 붙잡혀 투옥되거나 가족 및 부족원에 의해 공격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담(18세, 가명)은 자신이 박해를 받은 이야기와 이것이 어떻게 그의 믿음을 강화했는지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담이에요. 저는 예멘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저희 나라는 거의 제가 살아온 평생 동안 전쟁 중이었어요. 그러나 전쟁의 한 가운데에서 제 인생은 극적으로 변했어요. 제가 현재까지 6, 7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의 소들을 돌봤어요. 이것은 저에게 생각할 시간과 기회를 많이 주었어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 들었어요. 심지어 그들 중 일부를 알았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 항상 남았던 질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예언자 이상이 될 수 있을까? 저보다 나이가 많은 한 친구가 용서는 오직 피의 대가를 통해 가능한 것을 저에게 설명해주었어요. 지금도 예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다른 예멘 부족의 구성원을 살해하면 대가를 치러야 해요.

저는 작년에 몇몇 무슬림 배경을 가진 젊은 기독교인들과 함께 훈련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어요.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기독교인 친구들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신이 낫았죠. 저는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예멘인들이 이렇게 많을 줄 전혀 몰랐어요. 저희가 훈련을 받는 동안 무장한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이 저희 물건

들을 전부 검사하는 동안 모든 이들이 구석에서 있어야 했어요. 코트, 가방, 모든 것을 검사했죠. 그리고 저희는 경찰서로 연행되어 구금되었어요. 저는 금방 풀려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며칠은 몇 주가 되고, 심지어 몇 달이 되었죠. 보통 긴 밤들을 보냈어요. 저희는 불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거나 뜰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어요. 앞으로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물을 때 마다 항상 같은 답변을 받았어요: “내일 더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그 다음 날에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때때로 저희는 다른 교도소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붙잡힌 지 7주가 되어서 이렇게 이동하던 중에 우연히 경찰들이 심하게 경계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어쩌면 친구들이 준비했거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이었죠. 이런저런 저런 저는 그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탈출할 수 있었어요. 저는 제가 있던 도시에서 간신히 벗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는 다른 곳으로 왔어요. 이곳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다른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도 저는 결코 안심하며 살 수 없어요. 만약 나쁜 사람들이 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듣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그리스도를 결코 떠나고 싶지 않아요. 감옥에서의 경험은 사실 저의 믿음을 더 강하게 했어요. 복음의 일부분을 암기하는데 있어서 그 전보다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제 가슴 깊이 뿌리 박히기를 원해요.”



에리트레아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에리트레아의 교회들은 대부분 지하에 있지만 이것이 그 성장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한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폐쇄되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로 부르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불가능해진 곳도 없죠. 그런데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에리트레아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큰 대가를 치러야 하고, 이는 특히 나라에 남아있으면 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투옥되는 것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감옥은 고문, 굶주림, 그리고 보통 아무 치료없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과 같은 냉엄한 현실이 뒤따릅니다.

압둘라(가명)는 전통적인 무슬림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수니파 이슬람은 에리트레아에서 인정된 4개의 종교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압둘라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게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기독교인 여성과 결혼해 일곱 명의 아이들을 두었습니다. 에리트레아의 모든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직면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압둘라는 듣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내의 동료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압둘라는 그가 특히 관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하든 관심을 끌거나 응징을 야기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했고 시간을 갖고 1대1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중 한 동료는 압둘라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압둘라는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서 이슬람과 정부에 대한 반역자로 간주되었습니다.

2019년 어느 날, 압둘라가 집에 있을 때 그 동료는 압둘라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덫이었습니다. 동료는 몰래 녹음을 하면서 그가 정치적인 비판을 하도록 미끼를 놓았습니다. 그 다음날 압둘라는 체포되고 기소되어 투옥되었습니다. 압둘라는 감옥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여벌 옷을 갖다 주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고 남편은 먹을 것을 일주일에 세 번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엄격한 식단으로 팔죽과 빵을 받아먹었습니다. 화장실 사용도 일주일에 세 번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아내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고 악화되어 가고 있는 건강에 대해 상세히 알렸습니다. 압둘라가 쇠약하게 될 정도로 병들고, 치료가 시급할 때가 되어서야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행히도 때는 너무 늦었고, 2022년 압둘라는 사망했습니다. 정부는 그의 지인들로 하여금 아내에게 남편의 시신을 찾아가라고 말하도록 알렸습니다.

압둘라의 가정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이들은 그는 신앙 때문에 투옥되었다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압둘라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슬람으로 다시 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기소가 취하될 거라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투옥, 굶주림, 고문, 그리고 질병도 압둘라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습니다. 압둘라의 이야기는 에리트레아에 있는 많은 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대다수가 이승에서는 이름도 없이, 알려지지 않은 채로 세상을 떠나지만 천국에서 영광의 왕관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해주세요

1. 압둘라의 남겨진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아내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교회 지원에 의지하고 있지만 여덟 명의 식구를 지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가 가족들을 돌볼 수 있도록 지속성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2. 아내가 아이들을 키워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로하시고 강화해 주시고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계속해서 지원과 사랑을 받도록 기도해주세요.

3. 이 가정의 믿음이 계속 강하게 남고 신앙을 인해 박해 받고 죽음 당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4. 에리트레아 교회들의 지혜와 분별력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용감하고, 동시에 그들이 처한 불안정한 상황을 염두에 두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5. 에리트레아의 새로운 개종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함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기도해주세요.

아프리카 (Africa)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60:1-3)

수단 (Sudan)

기독교 박해지수
10 위

수단에 대한 오픈도어의 비전은 박해에 직면한 가운데서 굳건히 서고 자신을 지지할 수 있도록 다음을 통해 경제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 박해 대비 프로그램 • 제자도 강화 • 경제적 역량 강화 촉진

국가 상황

주요 종교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2,000,000	4.3
이슬람교	42,334,000	92.0
민족종교	1,167,000	2.5
불가지론	415,000	0.9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박해지수 총합은 100점이다 (16.7 × 6개 영역 = 100).

개인 생활

기독교인들은 안전 이유로 그들의 신앙을 현지 지역사회와 공개적으로 논하는 것을 피한다. 이는 정부의 체포 또는 이슬람 과격분자들의 공격으로 이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압박은 지역사회와 경찰에 의한 끊임없는 감시로 강화되었다. 성경과 같은 기독교 관련 자료들을 소지하는 것은 특히 이슬람교 가정 내의 개종자들로 하여금 큰 위험을 수반하게 한다. 발각되면 기독교인들은 다시 이슬람교로 돌아가도록 극심한 압박에 직면한다. 만약에 저항하면 이들은 소유를 잃게

나, 지역사회에 의해 추방 당하거나, 추가적인 폭력 행위의 위험을 무릅쓰게 된다.

가족생활

수단에서 기독교 가정을 세우기 위한 시도는 정부,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 난동에 의한 압박으로 인해 어렵다. 기독교인들이 소수집단에 속하고 이슬람교인들이 사회 규범에 너무 많은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이슬람교인과 결혼하는 것은 곧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것으로 기대 된다. 기독교인 자녀들은 가족의 신앙을 이유로 흔히 괴롭힘을 당하고 기독교인 자녀들을 양육하는 개종자들은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잃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정부는 이슬람교에 대한 학교교육을 요구한다.

공동체 생활

수단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집단 압박은 엄청나다. 주로 정부의 이슬람 법에 대한 엄격한 해석에 기반을 둔 공공질서법은 카르툼에서 시행 중이다. 이러한 법들은 “노출이 심한 옷들”, 이외에 “명예, 평판, 그리고 사회 도덕에 대한 공격”을 금한다. 경찰들은 이것을 구실로 임의적인 위반을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체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 공동체들은 지역사회 자원(깨끗한 식수와 같은)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 이는 특히 도시 지역 밖에서 실제로 그렇다. 수단 시민들은 이슬람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와 정부의 일반적인 태도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지역사회자원 사용을 제한하므로 가능한 모든 기회들을 이용해 기독교

인들을 격하시키고 처벌한다. 누바 산맥과 남부의 다른 지역들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정부군으로부터 공습에 직면한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들도 기독교인들을 찾아내는 가택 수색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생활

기독교인들, 특히 남수단에서 온 이들과 서방의 선교사들은 정부군에 의해 흔히 감시 당하고 있다. 이는 과도 정부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바뀔 것이라는 큰 기대가 있다. 국가 기관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그들의 일을 통한 복음전도적 영향에 대해 공공연하다고 여겨지는 조직들 가운데서 방해와 금지가 발생한다. 많은 국제 비정부기구들은(NGOs) 기독교인 것이 알려지면 국가로부터 금지된다.

교회 생활

수단에서 교회들은 당국과 더 넓은 사회에 의한 큰 압박 아래 있다. 가장 위에 있는 수단의 관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끊임없이 개입한다. 기독교인들은 당국과 군중으로부터 교회를 짓거나 유지하는 것을 방해 당한다. 정부의 허락 없이 상황을 바로 잡고자 노력하는 것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폭력을 당하기 쉽게 만든다. 많은 공격들은 지역사회 지도자들에 의해 선동되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인들과 이들의 교회에 대한 폭동, 폭격, 그리고 공격을 부추긴다. 이와 같은 폭력은 외진 지역들에서 더 흔하다. 수단의 사회 기반 시설은 이와 같은 지역들에 원조와 국제 감시가 이르는데 어렵게 만들어 범인들로 하여금 처벌 없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_ 폭력적인 기독교 박해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형제자매들

5,170명의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이유로 살해를 당했습니다
1,500명의 기독교인들은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대략적 추산)
2,714명의 기독교인들은 납치를 당했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폭력 상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코하람(Boko Haram), 이슬람국가(IS), 알샤바브(al-Shabaab)와 같은 극도의 지하디스트 단체들은 나이지리아, 부르키나

파소, 소말리아, 그리고 말리와 같은 나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혼란과 강도 가운데서도 작전을 펼치며 기독교인과 무슬림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이중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곳 보다 아프리카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이 전례 없는 맹수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많은 이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위험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용기와 회복과 더불어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홀로 건디게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영적 충격: 박해로 인해 보통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버리거나 심지어는 위험한 사상들로 과격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생존은 위태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정서적 충격: 폭력적인 박해의 피해자들은 정신적 외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분노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수의 기회를 노려 폭력의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교회는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리적 충격: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1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들의 교회의 존재 자체를 위험에 빠트렸습니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라졌습니다.

사회경제적 충격: 극단주의자들은 납치를 자행하며 엄청난 몸값을 요구하거나 집을 망가뜨려 기독교인들의 삶을 파괴하고 교회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픈도어는 1990년대 초부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현장에서 기독교인들을 지지해왔습니다. 진행중인 프로젝트로 2022년에는 50만명에게 성경 훈련, 사회경제적 지원, 트라우마 치료, 그리고 교육/생계 훈련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들의 막대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현장 사

역을 대폭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 확장의 일환으로 나이지리아, 부르키나파소, 카메룬을 중심으로 사헬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폭력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정책 입안자들과 의사 결정자들에게 발표할 계획입니다.

기도해주세요

1.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직접적인 폭력의 피해를 당한 모든 가족들을 영적, 물리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도록.
2. 전세계 교회들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사태에 대해서 깨어 있고, 연합하고, 열심을 내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후원하고, 목소리를 내도록.
3. 미디어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폭력에 대해 충실하고 계속적으로 나누도록.
4. 시민사회가 더 연합하고 기독교인에게 행해지는 극심한 폭력과 그 영향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고 문제를 다루는데 더 충실하도록.
5. 정부가 법률전문가들과 정부 관리들을 잘 갖추어 처벌할 것은 처벌하여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극단주의 이데올로기와 폭력에 대응하도록.





카메룬 동역자님들의 방문과 기도가 아자라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자라의 남편은 2021년 카메룬 최북단에서 발생한 보코하람의 공격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지난 해 8월에 스위스에서 온 오픈도어 여행자들은 최북단에서 온 여성들과 함께 만나 이들을 격려하고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아자라였고 오늘날 그녀는 오픈도어 방문자들의 기도와 존재사역에 감사하며 그녀의 시력과 형편이 나아졌다고 전했습니다.

2021년 1월, 아자라의 남편과 일부 이웃들은 카메룬 최북단에서 신자들에 대해 행해진 많은 공격들 가운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여섯 명의 자녀들과 고아가 된 다른 여성의 다섯 명의 아이들을 돌보도록 남겨졌습니다. 아자라(38세)는 순간적으로 11명의 엄마이자 공급자가 되었습니다. 2022년 열린 국제 존재 사역 여행 때 방문자들과 오픈도어 지지자들은 계속되는 폭력으로 영향을 받은 아자라와 최북단에서 온 다른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아자라는 자신의 건강과 11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싱글맘으로서의 책임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여행자들은 그녀가 건강을 되찾고 제분 사업에서 성공해 안심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현장 파트너들은 아자라를 또 만났고 그녀는 그 만남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의 삶을 더 낮게 만들었다고 간절히 나누고 싶어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매일 아프고 거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제분 사업을 하는 동안에도 거의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나서 모든 일이 형통해졌어요. 몸도 멀쩡하고요.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 때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돈도 없었고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이들

을 학교에 보냈고 교복, 샌들, 양말, 공책, 그리고 다른 책들도 사줄 수 있었어요. 이제 주님이 저를 지켜 주시니 저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이 지역의 박해 받는 교회들을 방문해주신 지지자들과 스태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존재 사역은 교회를 강화하고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리는 것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기도해주세요

1. 카메룬 최북단과 이 지역 전체에 걸쳐 살아가고 있는 미망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주세요. 이들이 가족들을 위해 공급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기도해주세요.
2. 카메룬 최북단의 안보 상황이 호전되도록 기도해주세요.
3. 기독교인들을 잡아내 살해하고 이들의 가족들과 생계를 파괴하는 공격자들을 두고 기도해주세요.



라틴 아메리카 (Latin America)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12)

쿠바 (Cuba)

기독교 박해지수
27위

오픈도어는 다음을 제공함으로써 쿠바의 박해 받는 교회들을 강화한다:

- 성경적 및 기독교 문헌 배부
- 생계 프로젝트
- 성경적 훈련
- 약화된 교회 지도력을 강화할 지도력 개발 프로젝트
- SED / 교회에 대한 자기 의존성을 높이고 대외원조에 대한 의존을 줄일 회복력

국가 상황

주요 종교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6,936,000	61.3
기타	1,954,650	17.3
불가지론	1,898,000	16.8
무신론	476,000	4.2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박해지수 총합은 100점이다 (16.7 × 6개 영역 = 100).

개인영역

블로그 및 페이스북 포스트에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국가의 면밀한 감시를 받는다. 특히 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에 견책이 증가했고, 이는 인터넷 접속 및 여행 금지를 야기했다. 실제로 모든 쿠바 사람들은 모든 소셜미디어 사용과 전화 통화가 당국들에 의해 감시되고 있다고 추정한다. 이와 같은 괴롭힘의 주요 목적은 시민들 가운데서 자기 검열을 격려하기 위함이다. 대개 기독교 인권 활동가들과 정권에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도전하는 이들은 가정과 교회로부터의 분리를 야기하는 임의로 체포 및 가택 연금을 당한다. 때때로 이들은 면밀한 경찰 감시 아래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고 집에 남아있어야 된다.

가정영역

국가가 나라의 모든 아이들의 주 교육자로 간주되고, 혁명 이념은 아이들이 어릴 때 부터 영향을 미친다. 공산주의 교육은 학교에서 의무적이다. 매일 아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교생은 손을 들고 다음과 같이 선언해야 된다: “우리는 체와 같이 될 것이다”(체 게바라는 공산주의의 아이콘이다). 아이들을 국가의 공산주의 가치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는 부모들은 징역형과 양육권 상실에 직면하고, 그들은 정권의 극심한 세뇌에 맞설 법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거의 그들의 신념과 믿음에 따라 양육할 수 없다. 인권 옹호에 개입된 기독교인들의 자녀들은 “혁명의 적들”의 아이들로 여겨져 협박



과 또 다른 어려움들에 직면한다. 정부에 반대하는 기독교인은 가족들을 불필요한 고통에서 구하기 위해 나라의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이동해야 된다. 이는 가족들이 장시간 동안 떨어져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영역

정권의 과격분자들과 동조자들은 기독교인들의 활동들을 면밀히 감시한다. 집권당에 반대하는 교회들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과 마찬가지로 신앙 기반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권에 맞서 파업에 참가한 이들은 반체제 인사로 여겨지고 감시와 심문의 표적이 된다. 쿠바 혁명수호위원회는 주요 정보원이고, 이들의 목적은 다른 시민들, 공산당의 과격분자들, 관리들, 그리고 때때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도움으로 체제 전복적이며 반 공산주의 견해의 확산을 없애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은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마르크스 사상을 의무적인 국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강제로 공부해야 한다. 그들은 이와 같은 강제적인 세뇌를 반대하고자 하면, 교육을 지속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으로 위협을 당한다. 정권에 대한 반대자로 여겨지는 기독교인들에게 완전히 안전한 공동체 장소는 없다. 가끔 관리들은 괴롭힘의 한 형태로 기독교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이들이 보다 더 적은 제한 가운데서 활동하도록 허용하지만, 이는 두드러질 정도의 위협이 감소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돈을 요구한 것은 "사적이고 임의적인 합의"이며 법적 보장이 없다.

국가영역

정부는 특히 최근에 '반역자'에 대한 감시 증가 및 법령 370의 적용으로 인해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기독교인, 기독교 단체들, 종교 자유 옹호자들, 또는 국가의 인권 및 시민권 침해, 공산주의 모델을 버려야 하는 필요성, ("가족법 투표"의 맥락에서) 결혼의 성스러움, 또는 카스트로 집안과 관련된 스캔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기독교 인권 활동가들은 예컨대 체포, 차별, 인신 공격, 임의적인 구금, 벌금, 박해, 이동 제한, 검열, 아니 그 이상에 직면한다. 이와 같은 제한에 직면하는 기독교인들과 그 가족들은 특히 정부의 부당함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쿠바복음주의연맹과 관련된 미등록 교회들에 속한다. 정권은 사법제도를 완전히 통제하고 판결은 불처

벌을 보장하며 항상 국가를 지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을 위한 절차상의 보증에 대한 권리는 정당한 법 절차에 대한 권리를 포함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대외간섭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국제적인 감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교회영역

1959년 공산주의 혁명 이전에 등록된 쿠바의 소수 교회들 만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때부터 대부분의 경우에 다른 지역 단체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갖거나 지원자의 활동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즉 공산당 사상에 위배되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그 결과로서 많은 교회들은 등록이 거부되어 불법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미등록 교회들은 반대자로 여겨지고 단체들의 폐쇄로 이어지는 벌금,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박해, 그리고 재산 몰수에 이르는 처벌에 직면한다. "혁명의 적"으로 간주되는 교회 또는 종교적 지도자에 의해 요구된 허락 또는 허가는 임의적으로 거부된다. 설교는 끊임없이 감시되고 시민 사회의 영향력은 공산주의 정부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보복의 끊임없는 위험은 기독교인들이 공공 부문, 특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 행동을 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라틴 아메리카 기독교인 박해 원인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계속 해서 늘고 있습니다. 2023년 월드와치리스트에 따르면, 올해에 기독교인들을 가장 심하게 괴롭히는 50개국 중 4개국이 이 지역에 해당합니다. 콜롬비아, 쿠바, 멕시코, 그리고 니카라과는 기독교 교회가 가장 많은 박해를 받는 국가들에 대한 연간 리스트에서 각각 22, 27, 38, 그리고 50위를 차지했다. 2022년에는 리스트에 니카라과가 포함되지 않았고, 다른 3개국은 점수가 더 낮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라틴 아메리카의 박해가 증가한 것을 보여줍니다.

강제 이동, 살해 위협, 교회 파괴, 정신적 피해, 감시, 괴롭힘, 절도, 재산 몰수, 또는 공공서비스/교육에 대한 접근 같은 기본권 박탈은 이 대륙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단지 예수님을 믿고 성경적 원리를 살아낸다는 이유로 직면하는 결과 중 일부입니다. 오픈도어 라틴 아메리카 지부 ODILAB 보고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3년 사이에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멕시코, 쿠바, 엘살바도르, 그리고 온두라스에서 3900건 이상의 사건이 있었고, 이는 지역 전체에 걸쳐 41,300명의 신자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ODILAB 라틴 아메리카 박해 패턴 연구는 이 여덟 개의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매일 무엇을 경험하는지 언뜻 보여줍니다.

부패와 조직범죄

이는 지역에서 주요 박해 원인입니다.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그리고 온두라스와 같은 나라에서 불법 단체들의 증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괴롭힘, 위협, 추방, 또는 살해로 이어졌습니다.

조직범죄 단체들이 교회를 군사적으로 겨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장 단체들은 교회를 그들의 불

법 활동들에 대한 분명한 적수로 보고 특히 국가의 영향력이 거의 없는 시골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태롭게 합니다. 이는 종교적 지도자들 및 그들의 가족들을 위협하고, 자주 교회 활동들을 괴롭히고 감시하고, 교회 및 다른 재산을 파괴하고,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 회중 구성원들을 살해하거나 겨냥해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교회가 쫓겨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또는 환경적 지도자들일 경우에 박해는 훨씬 더 심합니다.

콜롬비아의 24,863명 기독교인 중 56%가 이 원인으로 인해 신앙의 박해를 받고,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에서 이 원인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기독교인 수는 249에서 417명에 이릅니다.

기독교 교파 보호주의

이는 일반적으로 가톨릭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공동체원들로 하여금 개신교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막을 때 발생합니다. 이 상황은 강한 로마 가톨릭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멕시코의 일부 토착민 공동체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는 체벌, 벌금, 공동체 내 차별, 물과 전기 같은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 거부, 재산 또는 토지 몰수, 교회 파괴 또는 폐쇄, 심지어 또는 공동체에서의 제명까지 이르고, 이는 많은 토착민 신자들을 방황하게 합니다.

멕시코에는 예를 들어, 보고 기간 동안 기록된 800개 박해 사건들 가운데서 44%가 이 원인에 기인합니다. 부패와 조직범죄가 나머지 35%를 차지했습니다. 국가통계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나라에서 가장 많은 토착민 인구를 가진 일부인 치아파스주, 오악사카주, 이달고주, 그리고 할리스코주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인해 박해를 받는 주요 지역이기도 합니다.

공산주의 및 공산주의 이후의 탄압

비록 일부 국가들에서는 공산주의 사상들이 과거의 일이지만, 다른 것에서는 예배의 자유를 위협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쿠바와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 안에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앙 때문에 구금되고, 심문을 받고, 감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수감되거나 추방당할 것을 두려워해 신앙생활을 조심하게 됩니다.

쿠바의 경우, 정치체제는 수십 년 동안 교회의 합법화를 허용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기존 교회들은 정부와 동맹하고 억압적인 정책을 지지합니다. 쿠바의 알베르토 레예스 신부가 그의 글 Si en mi tierra에서 설명하듯이 종교사무국이 신앙의 실천을 통제하고 교회의 모든 움직임을 감독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쿠바의 기독교인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772명의 기독교인들이 이 이유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상황이 이만큼 극심하지는 않지만 유사합니다. 정부 관리들이 보고된 박해 사건들 중 41%를 수행하면서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주요 박해자들인 것으로 추정되었고, 마찬가지로 나라에서 영향력이 있는 범죄 조직들이 27.0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독재정치

공산주의 및 공산주의 이후의 정부를 가진 나라들의 상황과 아주 유사하게, 라틴 아메리카의 독재 정부에 의해 박해 받은 기독교인들은 감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임의로 구금되고, 심지어 나라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교회는 기관으로서의 자유에 대한 주요 공격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경우에 재산이 몰수되고,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파괴되었고, 그리고 은행계좌들이 동결되었습니다.

이는 니카라과의 경우이고, 현 정치체제는 가톨릭과 복음주의 교회들에 대한 조치와 함께 국가 내 기독교인들의 예배의 자유를 위협했습니다. 텔레문도와 같은 미디어에 따르면, 2018년 이래 오르테가 정권에 의해 폐쇄된 사회 조직들은 수백 개의 교회, 재단, 학교, 기독교 NGO, 그리고 종교 매체를 포함해 이미 3,300 곳이 넘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몇몇 마스크는 국가 내

수십 명의 종교적 지도자들의 (연금 계좌를 포함한) 은행계좌 동결과 몇몇 교회들 및 종교 기관들의 자산 몰수 고발했습니다.

세속적 편협성

이는 비록 지역의 대부분 나라에서 천천히 자라는 역학이지만, 이는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의 다양한 새로운 종교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움직임과 함께 점점 더 악명이 높아지는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사회 집단들에 의해 제시된 '혁신적인' 견해들이 공공 부분에서 모든 신앙의 표현을 제거할 의도로 더욱더 사회로 받아들여졌고 집권 정당들의 연설과 프로그램을 차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오픈도어 사역

오픈도어는 1980년 이래 이 지역의 박해 받는 교회들이 권리를 지키고 생활여건을 향상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매년 각국의 박해 상태를 분석하고, 박해 지수를 검토하고, 그리고 각각의 공동체의 필요를 평가합니다. 그 때부터 오픈도어는 모든 종류의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법률 교육 및 상담, 공동체 개발 프로젝트, 교회 및 가정 건축 또는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 지도자들과 그 가족들의 기본 및 고등 교육을 위한 장학금, 기도를 통한 교회 강화 프로젝트, 성경 및 기독교 문헌 배부, 성경적 및 목회자 리더십 훈련, 박해 받는 가족들을 위한 은신처 및 보육원 건축, 정신사회적인 지원 및 트라우마 보호, 그리고 긴급 구호 모금에 해당합니다.

박해 받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도 보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도어_Open Doors South Korea 유튜브 채널로 이동해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함께 보내드린 기도월력을 보시면서
11월 한 달 동안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들을 위한 기도예 함께 동참해주세요!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전달/훈련

-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6\$ (7,000~)
-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생계지원

-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여성,어린이 케어

-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지원 40\$ (50,000 ₩ ~)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 선물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20\$ (30,000₩~)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50\$ (60,000₩ ~)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50\$ (60,000₩ ~)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00\$ (120,000₩~)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 (다중선택가능)
-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전화(02-596-3171/010-7548-3171)또는 메일(odsk@opendoors.or.kr)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 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주소:		-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위 표를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보내실 곳 : 010-7548-3171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굴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1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CMS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출금은행		계좌번호	
주민번호		출금액	10,000원 기타:	출금일	<input type="radio"/> 5일 <input type="radio"/> 25일
전화번호		출금동의 서명			
주소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010-7548-3171)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